

직장불자회 “경전삼매드니 정법 보여요”

임업연구·대우KAI 등 교리 배우며 모임 활성화

동료 불자들이 경전을 읽으며 불교를 알고자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불자회의 활성화도 꾀하는 직장불자회들이 화제다. 이들 불자회는 임업연구원 불교연구회, 한전 본사 반야회, 대우종합기계 KAI 불교법우회, 과천종합청사 정법회 등.

임업연구원 불교연구회는 지난해 11월 창립과 동시에 이태수 부회장의 지도로 경전을 읽고 있다. <천수경>과 <금강경>은 이미 끝났고, 현재 <성불요전>을 매주 강독하고 있다.

연구원으로서 현장 답사나 연구 보고 등과 같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경전 강독은 창립 이후 지금까지 매주 목요일 6시 30분 10여 명의 회원들이 동참하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불교연구회가 경전 읽기에 열의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직장인 불자로서의 올바른 수행 방향을 찾겠다는 회원들 스스로의 원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회원들이 자주 만나면 자연스럽게 서로의 유대를 돈독히 할 수 있고, 이는 불교연구회의 활성화로도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것.

불교연구회의 경전 읽기를 이끌고 있는 이태수 부회장은 “수행과 실천의 힘은 불교를 바르게 알 때 가능하다”며 “짧은 시간이지만 경전 강독이 회원들의 수행과 모임의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4월 8개 회사로 분할돼 활동 자체가 어려웠던 한전 본사 반야회도 경전 공부로 통해 회원 간의 거리를 좁히고 제 2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과거 스님이나 법사를 초청해 <부모은중경>, <초발심자경문> 등을 배웠던 반야회지만 이번에는 이순형 구도부장의 지도로 6월 28일부터 매일 둘째주와 넷째주 목요일 6시 30분에 <금강경>을 읽고 있다. 강독을 진행하는 이씨는 “이번 강독은 <금강경>에서 재미있고 기초 교리를 담고 있는 부분을 발췌해 우선적으로 공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 과천종합청사 정법회는 지난 1년간의 기초교리 공부를 끝내고 평생불자회 김정호 회장으로부터 매주 금요일 정오부터 1시간 30분 동안 <화엄경>을 공부하고 있다. 배워야 의식이 생기고 의식이 생겨야 발전할 수



◇서울 삼성동 한전 본사에서 <금강경>을 강독하고 있는 반야회 회원들.

다 는 옛 선사의 말처럼 경전을 중심으로 토론하며 ‘일터 속의 불교’를 정립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다.

대우종합기계 KAI 불교법우회도 매일 넷째주 <아함경>을 강독하고 있다. 강의를 듣고 있는 10여 명의 회원들은 모두 기본교리강좌를 이수한 법우들. 교리부장에게 불교에 대한 기

본 소양을 배운 지금은 경전 공부를 통해 신심을 다지는 독실한 불자로 거듭나고 있다.

대우종합기계 KAI 불교법우회 정진한 회장은 “경전공부를 통해 타락에서 자력으로 수행 패턴이 변했고 나름대로 불자라는 자부심이 높아져 불자회도 활성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gobaccou@buddhapia.com

우리 모임에선



세무사불자회 명찰 순례

한국세무사불자회는 6월 16일 ‘은4월 맞이 성지순례법회’를 봉행했다. (사진) 불자 세무사 37명이 동참한 이번 순례법회는 경주의 불국사, 석굴암, 대구의 은해사, 거조암, 선본사, 불굴사, 김천의 직지사 등의 답사로 진행됐다.

교사불자회 회암사 법회

한국교사불자연합회 서경지역회회는 6월 24일 경기도 양주 회암사를 찾아 6월 가족법회를 봉행했다. 회원 및 가족 30여 명이 참석

한 이날 법회는 회암사지 유적답사와 인곡스님의 법문으로 진행됐다. 인곡스님은 법문에서 “불교적 인성을 가진 청소년을 길러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정인불자 간부수련

전국교정인불자연합회는 6월 30일부터 1일까지 부산 범어사에서 간부수련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수련대회에는 전국 39개 지회 간부 300여 명이 참석해, 수행사례 발표와 특강, 관음정진, 발우공양, 참선, 사찰순례 등을 통해 불자 교정인의 원력을 다졌다.

MBC 불교연구회 정기법회

MBC 불교연구회는 6월 21일 오전 12시 30분 여의도 포교원에서 20여 회원이 모인 가운데 6월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여의도 포교원 주지 현진스님은 ‘불자의 도리’를 주제로 법문했다.

네번째 NGO 명상수련

12~14일 서산 부석사

참여불교 재가연대(이하 재가연대)는 시민단체 활동가를 대상으로 하는 ‘NGO 여름명상수련회’를 오는 12~14일 서산 부석사에서 개최한다. ‘산사의 고요, 깨어나는 영성, 행복한 연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수련회는 주경스님(포교원 포교국장)의

‘수행이야기’와 ‘참선지도’, 초월스님(부산 광성사의 티베트의 지혜와 명상’, 오원명 원장(명상아카데미의 ‘내면으로의 여행’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한편 재가연대는 6월 26일 법륜사 시민선량에서 ‘삶에서 깨어나기’라는 주제로 동양학에 정통한 한국학연구소 박현 소장(강사로 초청해 ‘NGO 명상학교’의 세번째 강좌를 개최했다. 김원우 기자



진제스님 계사로 130명 수계

유불동 전국모임

“부처님을 일심으로 받들어 청하합니다.”

6월 24일 오전 10시 부산 해운정사 원통보전에서 수계를 청하는 불자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가상공간에서 활동하는 유니텔 불교동호회 부처님나라 130여 회원들이 하계합동수계법회(사진)를 봉행하기 위해 이곳을 찾은 것이다.

이번 법회는 23일 저녁 10시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폭우로 인해 다음날 새벽 1시 입제식과 철야정진으로 시작했다. 24일 수계식 계사로 참석한 진제 스님(해운정사

조실은 일상에서의 5계 실천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화두를 공부하며 제정제를 닦는 방법도 자세히 설명하며 참찰자로 거듭나길 당부했다. 이어 진행된 수계식에서 하얀 상의를 입은 130여 불자들은 참회진언과 연비를 통해 진정한 불제자로 거듭날 것을 서원했다. 오기석 대표사님은 “부처님나라의 법우님들의 선한 마음과 서로 도우는 마음이 잘 나타나 큰 어려움이 무사히 진행될 행사였다”며 “5계를 지키기로 약속드리고 받은 계첩과 소중히 여길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부처님 말씀은 새싹 자양분”

교사모임 청림회 창립, 10월 10년째 경전공부...보시행 활발

불심깊은 교사들의 모임인 청림회 창립 10주년 기념법회(사진)가 6월 24일 부산 청룡동 경동아파트 상가내 여여선당에서 열렸다.

“교사들의 불심이 곧 새싹 불자를 키우는 자양분이니 더욱 분발하고 노력해야지요” 이날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윤금자(69) 회장의 말처럼 청림회는 부산의 지역별 교사불자회 중 경전 공부를 통한 신심 다지기에서 단연 돋보이는 모임이다.

91년 여교사 11명이 모여 창립된 청림회는 이제 80여 회원으로 늘었고 지금까지 무미스님을 모시고 해운



월 1회 경전공부를 한번도 거른 적이 없다. (예불문) <반야심경> <천수경> <금강경> <능엄경> <증도가> <신심명> <화엄경> <보현행원품> 등의 경전을 배우며 지혜의 푸른 숲을 가꾸어 온 것. 현재는 육조대경 공부에 흠뻑 빠져있다. 창립 10주년 행사장에는 그간 공부한 경전과 테이프, 그리고 회원들이 빈틈없이 필기한 경전책자들이 전시되어 눈길을 끌었다. 천미희 기자

세월가도 꾀꿉한 초발심 ‘활동’

국방과학성 성불회 10월

서원을 담은 불자들의 노래가 고조된 산사에 퍼졌다. 국방과학연구소 성불회(회장 김은표)의 창립 10주년 기념 산사음악회(사진)가 6월 25일 대전 태전사(주지 도일)에서 열렸다.

대덕연구단지 불자 자녀들로 구성된 ‘불교어린이합창단’의 찬불가도 서막을 연 산사음악회에는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와 제97호 살풀이춤 이수자인 법우 스님의 춤과 불을



포교로 널리 알려진 도산 스님의 노래 공연 등이 펼쳐져 산사를 찾은 500여 불자들의 신심을 다잡았다. 지난 91년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 불자들에게 의해 창립된 성불회는 매주 목요일 복귀한 세미나실에서 법회를 여는가 하면, 주말을 이용한 철야정진과 사찰순례 자원봉사를 하며 폭넓은 수행활동을 펴 왔다. 또한 교리 공부에도 역점을 두고 <금강경> <원각경> <법화경>을 틈틈이 읽어 왔다. 이로 인해 성불회는 10여 년이란

게시판

알림

▲청소년 영상창작캠프=양정정 소년수련관은 27~29일 경남 합천 청소년수련관에서 2001 청소년 영상창작캠프를 개최한다. 참가 방법은 www.power1318.com을 참조. (051)868-0750

강좌

▲법사과정=해동불교대학원은 불교학과 법사과정을 마련했다. 1년간 진행될 이번 과정에는 부처님 생애, 소승불교의 이상과 실천, 불교와 예술, 불교와 세계 종교 등 12개 과목이 개설됐다. 강의 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5~7시. (02)741-0495

인터넷 화상 무료 법률 상담

law.buddhapia.com
 ■전화상담 매주 월~금 09:00~21:00
 ☎02)596-7231
 ■방문상담 매주 토요일 20:00~21:00
 ☎02)722-4162

(주)성산항공여행사 개업 15주년 기념

중국 오대산. 화엄사. 운강석굴 성지순례 5일

■순례경비: 69만원
 ■순례기간: 2001. 7월 30일 ~ 2001. 8월 3일 (5일간)
 ■신청기간: 2001. 7월 15일까지

문수보살께서 현신 하신 청량산 오대산과 중국 3대 석굴 중 하나인 운강석굴, 화엄사,현공사까지 직항편으로 알차게 모십니다.

일	일정
1일 (7/30)	인천 / 태원(1박)
2일 (7/31)	태원 / 진사, 쌍탑사 - 오대산(1박) / 불광사, 남선사
3일 (8/1)	현공사, 대동 (1박) / 운강석굴, 상하 화엄사, 구룡벽
4일 (8/2)	오대산(1박), 남선사, 현통사, 탑원사, 리후사, 보살경(대운사), 남대
5일 (8/3)	오대산 / 용천사, 금리사 태원 / 산사성박물관 - 인천(21:00) - 전 일정 호텔투숙 -

문의: (주)성산항공여행사
 대표: 02) 720-0111
 담당: 이규술 팀장 011-274-0355
 김승현 과장 011-440-2580
 E-mail: tour Love@komet.net

“티베트대학의 학생불자들이 모시면 가장 싸고 편하게 다녀오십니다”

티베트성지 순례

라싸, 시가체, 장체, 티베트불교 15대성지

현지 불자 가이드 특선 국립 티벳 문화 전시관 관람, 불경 석각공장 참관, 티벳 사찰 음식, 티벳 사찰 찻집 방문, 티벳 민간 소사할 순례, 고산증세를 위한 휴대 산소통 모두 지급

참가비: 스님 165만원, 일반신도 175만원
 *출국세, 비자비 및 외세 경비 포함(한국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입니다.)

출발일: 7월 25일 수요일(7박 8일)

문의: 02-722-8121

티베트 15대 불교 유적+네팔 불교 4대 유적

출발일: 8월 11일 토요일(10박 11일)
 참가비: 195만원
 고산병 예방을 위해 전원 4인승 산악용 지프 탑승

주최: 세계일류여행사, 티베트대학 안국학생불자회